

몸의 신학: 인간됨에 대한 배움

(글: 크리스토퍼 웨스트, 번역: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인간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인간 몸을 가렸던 무화과 잎을 벗겨내어, 부끄러움 없이 인간의 알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성성과 여성성 안에 있는 인간 몸에 대한 바라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性)의 상이성과 성적인 일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성(性)과 알몸에 집착한다고 느끼실 것 같네요. 심지어 제가 무종교의 그리고 외설적 문화에 의해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 내용은 성 요한 바오로 교황님의 첫 번째 주요한 교리교육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9월부터 1984년 11월 사이에 129번의 수요 알현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회와 세상에 가장 영구적이고 지대한 공헌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몸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몸의 신학은 인간 체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성경적 고찰인데, 이것은 성적인 욕망과 일치를 위한 갈망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합적 인간학”을 발전시킵니다.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한 처음에”(마태 19,8), 역사 안에(마태 5,27-28), 그리고 종말 때에(마태 22,30), 드러나는 우리 체험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의 신학) 두 번째 파트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당신 특유의 그리스도교적 인격주의를 독신과 혼인 성소에 적용시키고, 또한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인 「인간 생명」에서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에도 적용시킵니다.

물론, 이 짧은 글에서는, 실제 교황님의 혁명적인 교리교육 내용 중 작은 부분만을 전달할 것입니다. 교황님의 주된 사상과 함께 출발해 봅시다.

교황님의 중심 사상

만약 우리가 교황님의 중심 사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인간 몸과 성(性)을 이해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만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신적인 것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태초에 하느님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신비를 세상의 보이는 현실로 옮겨 놓도록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표징이 됩니다.” (1980년 2월 20일)

장황하고 긴 학문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인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셔서, 당신의 모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몸 안에 인장을 찍으셨습니다(창세 1,27).

이 모상은 “세 위격의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일치”인 삼위일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1979년 11월 14일). 그러므로 가톨릭 사교의 극적인 발전으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 닮음’이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인격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교황님은 덧붙이십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바로 이 ‘태초에,’ 인간 출생과 연관을 가지는 풍요의 축복이 내렸습니다.”(위와 같은 날)

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한 선물이 되라는 성소를 드러내기 때문에 “혼인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선물은 그들의 “한 몸”이라는 하나됨 안에서 완전히 실현됩니다. 몸은 또한 “생식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느님께서 의지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친교를 통해서 세상에 “제 3의 생명”을 가져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혼인은 남편과 아내에게 하느님의 삼위일체적 삶의 신비를 전달해 주는 표징으로 이해되는 “태초의 성사”가 됩니다. 이 신비는 부부를 통해서 자녀로,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인간

이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성적 욕구의 근본 취지는 하느님께서 당신 안의 진실한 선물 안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의 부르심이 복음서의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혼인적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존재의 근원적 의미를 실현하게 됩니다.”(1980년 1월 16일) 이것이 바로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결합하여 “한몸”이 되는 이유입니다(창세 2,24).

창조 설화 주해에서, 교황님께서서는 두 성(性)의 원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원고독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도록 불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원고독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인 경험인데, 그 근본은 사람이 성적인 욕망과 일치를 위한 갈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는 없었는데,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즉시 외칩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23) 이 말은 “마침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녀 역시 사랑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알몸이 그 신비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죄에 의한 육신과 영혼의 손상 이전에, 그들은 몸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격들의 완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평화로운 내적인 바라봄”으로 가능했습니다(1980년 1월 2일). 그들은 완전하게 몸의 혼인적 의미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의 알몸에 대한 체험은 부끄러움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창세 2,25).

역사적 인간

부끄러움이 들어왔음은 그들의 몸에 대한 체험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은총과 거룩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이제 마음속의 음욕과 싸워야 하는 “역사적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음욕은 하느님 사랑이 결여된 성적인 욕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욕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마태 5,28 참조).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가혹한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힘 안에 있는 구원적인 뜻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까?”(1980년 10월 8일)

말씀의 힘은 그것을 말한 사람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요한 1,29) 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음욕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숨결”에 다시 한 번 우리의 몸을 연다면, 음욕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것 안에서 원래의 몸의 혼인적 의미를 재발견 할 수 있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음욕으로부터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모든 삶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1980년 10월 8일)

종말론적 인간

종말 때의 몸에 대한 경험과 일치에 향한 갈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혼인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마태 22,30 참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혼인의 일치에 대한 갈망도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성사는 천상의 실재에 대한 지상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우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표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영원히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지요. 이것이 인간 마음의 궁극적 갈망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한 몸”의 일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에페 5,31-32 참조).

그러므로 부활의 몸에서 우리는 몸의 혼인적 의미를 종말론적으로 재발견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신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1981년 12월 9일).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태초에’ 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몸과 성(性)의 생식적인 의미로부터 분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1982년 1월 13일)

그리스도인의 성소

인간이 시원적, 역사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누구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합적 인간학”에 대한

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교의 독신과 혼인에 대한 성소를 적합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위한”(마태 19,12) 독신자들은 지상에서 천상 혼인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본질의 것에 참여하기 위해 성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역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선포합니다(마태 12,28). 진정한 그리스도교 독신은 성을 부정하는 것도 혼인을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과 혼인의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를 지상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사로서 혼인은 남자와 여자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시켜 줍니다. 혼인이 적절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형이 정확하게 신적 원형을 표현해야 합니다. 혼인의 성사성은 “표징”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신비를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 “표징”은 그 신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안에서 그것을 실현시킵니다(1982년 9월 8일 참조).

모든 혼인의 삶이 이 표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더 극적으로 이 표징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몸이 한 사람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처럼, 배우자들이 부부 행위 안에서 이루는 “한 몸”은 그들 혼인의 삶의 “영혼”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 들입니다”라는 말은 진실로 부부 행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1983년 1월 5일)

성(性) 윤리에 대한 새로운 속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성찰은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특별히 피임에 반대하는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진실로 이것이 모든 성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이 출산과 관련된 본래의 연결고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모든 육체적 관계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20세기의 성적인 혁명은 실제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몸의 신학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는 “진실한 표징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성적 관계 안에서의 윤리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1980년 8월 27일). 모든 성 윤리는 이 단순한 물음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행위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에 의해서 부부 결합의 “큰 신비”(에페 5,32)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받은 이들에게는 피임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부 결합은 “하느님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님께서서는 “몸의 언어”는 예언자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의로 임신을 피하는 성관계는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몸의 언어”를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에 대한 명백한 거부로 바꾸어 버리고, 배우자를 거짓 예언자로 만듭니다.

부부 결합은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치에 대한 성사적 표징입니다. 성사가 영적인 실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것이 분명히 영적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피임을 이 그림에 적용시켜 보세요. 의식하든 하지 않든,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과는 반대되는 표징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의적으로 임신을 피하는 성관계가 결코 혼인을 완성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성사의 “큰 신비”라는 본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위한 투쟁

만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가르침대로 몸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고,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적들이 존재한다면, 적들은 언제 그렇게 행동할까요?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사탄이 성사를 도용해서 하느님 구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근원적인/원초적인 성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낫겠네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 몸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성공적인지 보세요.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과 성이라는 선물이 하느님의 현존을 찾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몸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태롭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명백히 “혼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1982년 12월 15일) 실제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따르면, 몸의 신학은 인간됨의 의미에 관한 가장 적합한 교육의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가톨릭 가르침의 관점 안에서 몸의 신학이 많은 가르침들 중에 그저 하나의 작은 가르침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님에 의하면, 몸의 신학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사실상 전체 복음, 전체 가르침, 그리고 전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관점입니다.

결론

몸의 신학은 교회가 더욱 영적인 것이 되기보다는 더욱 육화하라는 호소입니다. 이것은 복음 말씀이 우리 육체와 뼈에 스며들라는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육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의 성 윤리를 억압하는 규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정신, 몸의 구원을 체험하는 부르심, 그리고 삶의 근본 의미인 본래 성의 의미를 육체적인 것에서 재발견하라는 부르심의 토대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듯, 남자와 여자가 인격 공동체를 이루라는 부르심은 “인간 윤리학과 문화의 가장 깊은 토대입니다.”(1980년 10월 22일)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존엄과 균형은 “모든 역사의 순간에 그리고 모든 지리적 장소에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1980년 10월 8일) 간추리면, 성(性)에 대한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생명에 대한 진리를 존중 하지 않는 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몸의 신학을 자신의 교황직에서 첫 번째 교리교육 프로젝트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새 복음화의 중심에는, 그리고 사랑의 문명과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한 중심에는, 혼인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과 가정의 중심에는 몸과 성(性)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살고, 선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